

# 화폐와 경제에 대한 고급 안내서

축적과 빛에 관하여



글쓴이 마이클 샤프  
옮긴이 Michell Lee  
한국어판 편집 오세준

Published by Lighting Path Press

St Albert, Alberta. Canada

www.lightningpathpress.com

©2009 by Michael Sharp.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written permission.

이 책의 어느 부분이라도 출판자의 서류로 작성된 허가서 없이는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든지,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혹은 정보저장 매체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Distributed by Ingram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Sharp, Michael, 1963-

The rocket scientist's guide to money and the economy : accumulation and debt / by  
Michael Sharp.

p. cm.

ISBN 978-1-897455-11-1 (alk. paper)

1. Money. 2. Saving and investment. 3. Debt. I. Title.

HG221.S537 2009

332.4--dc22

# 목차

1 장: 생명, 우주, 그리고 만물 .....	3
2 장: 돈의 본질.....	8
경제 .....	13
돈의 출처 .....	18
돈의 가치 .....	19
3 장: 돈과 관련된 문제들.....	22
일반적인 문제.....	22
축적 .....	24
타락 .....	27
권력 .....	29
비밀모임.....	34
진실은? .....	39
사회계급.....	44
보고서 .....	48
지식층 .....	49
세뇌 .....	56
교육 .....	59
과세 .....	62
4 장: 발전.....	68
제품의 차별화.....	70
왜곡 .....	72
귀금속.....	76
5 장: 위기.....	81
빚 .....	92
About Michael Sharp.....	113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 장 10 절』

# 화폐와 경제에 대한 고급 안내서

## 돈의 축적과 빛에 관하여

### 1장. 생명, 우주, 그리고 만물

돈, 돈, 돈, 돈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합니다.

돈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혹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파멸시키는 원인이다.

이것은 절망의 원천이다.

이것은 나쁘다, 이게 바로 최종 결론이죠.

돈, 돈, 돈

영성계의 한 작가로서, 돈은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세계의 교사 world teacher><sup>1</sup> 다」라고 주장하길 좋아해요. 저는 영혼과 신, 의식에 대해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 Truth>라고 주장해요. 이것은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예요. 밖에 있는 거의 모든 작가나 교사는, 아마도 우유부단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제외하고는, <진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거예요. 뭐, 별 거 아니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나는 세계의 교사다」라고 말하자마자, 제가 신과 영혼에 대해 가르치자마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당신은 영적인 스승님이시고, 신과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는군요. 음, 그렇다면 당신의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영적 진리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두고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질문은 항상 저를 괴롭혀왔고 다소 갈등을 불러왔어요.

저도 그런 정서에 공감은 해요.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죠.

---

<sup>1</sup> 저에게 <세계의 교사>가 되는 것은 단순한 의미로, 모든 이들의 <영적인 깨어남 spiritual awakening>과 <힘 불어넣기 empowerment>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찾아보기 쉽고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위계질서를 배제하고, 불명확하지 않게, 명백한 독단 같은 것이 없게끔 책을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꼭 공짜여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글을 쓰는데 수천의 수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묻는 것은 좀 무례하고 무심해 보여요. 당신이 매일 사 먹는 빵 가게에 가서, 「친구야, 너 것 좀 내게 넘겨줘봐. 왜냐면 난 그럴 자격이 돼.」 그러나요?

물론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을 깔보고 무시하는 짓일 뿐만 아니라, 서구 세계에선 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먹을 수조차 없는 사실로 견주어 볼 때, 참으로 무심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제 말은, 제가 괜찮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식량을 재배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마당을 살 여력이 없어서 음식을 만들 수 없음을 의미해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제가 저의 서비스를 다른 것과 물물교환<sup>2</sup>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제 영어 글쓰기와 책들을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자들이 재배한 바나나와 중국 공장에서 바느질한 옷들과 교환할 수 있을까요?

---

<sup>2</sup> <물물교환>은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다른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되는 일종의 교환 작업을 의미한다. -출처 「마이클 샤프의 스피릿위키 spiritwiki」  
- 스피릿위키 주소: [http://www.thespiritwiki.com/index.php/Main\\_Page](http://www.thespiritwiki.com/index.php/Main_Page)

문제를 알겠죠?

만약에 제가 하는 일로(유용한 영적 책을 쓰는 일) 돈을 벌지 못한다면, 저와 제 가족은 먹지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요.

여전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정말 그런 기본적인 정서에는 동의해요.

결론은, 제 책을 사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정보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그 반대예요.

문제는 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술력과 놀라운 생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사는 누구나



다가 저의 인터넷 책 eBook 을 적당한 가격에서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제가 제 eBook 을 위해서 얼마나 조금을 요구하는지 고려해보세요. 기본적으로 한 권당 몇 달러 수준이죠. 이것은 범죄예요. 영적인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을 뛰어넘는 범죄예요. 제 뜻은, 이것이 우리가 구매할 여력이 안 되는 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예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거나 적절한 거처를 사는데 필요한 돈조차 없고, 그로 인해서 지구상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명백한 범죄<sup>3</sup>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범죄일까요?

지금껏 보았다시피, 문제는 돈 자체가 이렇다가 아니예요.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현금이 부족한 겁니까?」 이예요.

---

<sup>3</sup> 당신이 만약 이러한 상황을 좋아한다면, 신이 보는 바로는, 그게 바로 신성 모독이예요.

## 2장. 돈의 본질

그런데,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현금이 부족한 것은 당신이 생각할 지 모를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한 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돈의 본질을 이해해야 해요.

그럼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건 쉬운 문제예요.

우선 돈이 단순히 인쇄된 종이 쪼가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로 출발해보죠.

돈은 금도, 은도, 백금도 아니고, 사람들을 <우와!> 또는 <이야!>하게 만드는, 손에 끼는 반지나 귀에 끼는 빛나는 작은 돌멩이들 같은 게 아니에요.

돈은 전혀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 당신이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면, 돈은 그저 하나의  
〈관념 idea〉일 뿐이에요.

그리고 돈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간단해요.

당신이 그것을 본질적으로 요약해보면, 〈돈은 시간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죠.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돈이 시간을 나타내긴 하지만, 모든  
종류의 시간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일한 시간 work time〉이에요.

돈은 일한 시간을 의미해요.

이건 분명해요, 그렇죠?

당신은 한 시간 동안 일하고 한 시간의 보수를 받아요.

만약 당신이 아무 것도 안하고 우두커니 서있다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돈은 일을 한 시간이죠.

물론 이것조차 전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일한 시간을

의미하긴 하지만, <단지> 일한 시간 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에요. 돈은 아주 특정한 유형의 노동을 의미해요. 문제는 제가 우리 집 뒤 뜰에서 일한다고 해서 보수를 받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용한 무언가를 하거나, 어떤 것을 짓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서야 돈으로 교환해서 받게 되죠. 제가 제 정원에서 제 식탁 위에 놓을 꽃들을 가꿀 때, 제가 아무리 이 일에 푹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제게 동전 한 푼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키워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질 꽃 한 송이에 대해선, 여러분에게 동전 몇 푼이라도 달라고 납득시킬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우리 집 벽을 칠한다면, 전 시간 당 40 달러를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 돈, 돈

돈의 정의는 이래요.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소비한 시간을 나타내요. 따라서 우리가 <노동시간 labor time><sup>4</sup>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며 소비한

---

<sup>4</sup> 간단하게 <노동시간>은 물물교환이나 일종의 화폐 교환의 형태로 일한 시간만큼 주고 받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당신이 한 노동의 총량을 의미해요. 노동 시간은 <일 work>이나 <일한 시간 work time>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해요. 일이나 일한 시간에선 생산적 활동이 교환에 대한 기대 없이 행해질 수 있어요 — 예를 들면, 집에서 일하는 것이나 자원 봉사의 경우 — 출처 「스피릿위키」 -

시간」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text{돈 Money} = \text{노동시간 Labor Time}$$

## 경제 The Economy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돈=노동시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도 잠시일 뿐이에요. 돈이 대체 무엇인지에 관해 더 명확한 개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에서의 화폐에 대해 좀 살펴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럼 경제란 무엇일까요?

자, 경제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돈의 교환이고, <돈= 노동>이니까, 다시 경제는 공식적인 노동의 교환이에요—여기에서의 노동이란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소비한 시간을 말해요.

간단하죠.

언제든 두 명 혹은 그 이상이 모여서 뭔가(일반적으로 돈을)를 교환하며 서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때, 경제가 형성이 돼요.

지금은 물론, 다른 형태들의 경제구조가 존재하고 모든 경제가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현 세상에서의 <공식 경제 formal economy><sup>5</sup>는, 즉 권력을 지닌 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감독되고, 철통같이 감시를 받는 이 경제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공식적인 경제 밑에는 다른 경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 경제가 있죠. 지하 경제 역시 <화폐 경제 monetized economy><sup>6</sup> 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경제같이 기록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요. <지하 경제 underground economy><sup>7</sup> 와 함께 <비공식

---

<sup>5</sup> 공식 경제는 주어진 영역 내에서 이뤄진 모든 공식적인 노동의 교환의 총합을 의미해요. -출처 「스피릿위키」 -

<sup>6</sup> .화폐 경제는 교환을 위해 물물교환을 활용하기 보단, 어떤 유형의 추상화된 화폐를 활용하는 모든 경제를 의미해요. -출처 「스피릿위키」 -

<sup>7</sup> 현대 경제 시스템과 연관해서 볼 때, 지하 경제는 공식적인 감시, 규제, 그리고 세금을 통한 노동의 추출에 따르지 않는 화폐 경제를 의미한다. 지하 경제는 비공식 경제 및 공식 경제와 대조될 수 있다.

경제 informal economy》<sup>8</sup>도 있어요. 제가 저의 책 세트 전부와 저희 집 창문들을 닦는데 도와주었던 젊은 남자와 거래를 했을 때 거기엔 노동의 교환이 있었지 화폐를 주고받진 않았어요. 이것은 물물교환이었죠. 그런데 여기서의 요점은 다른 형태들의 경제구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교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노동이 돈이나 물물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졌든지 혹은 기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요점은 경제는 노동의 교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간단하게 하여 1000 명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가정하고 봤을 때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1000 명의 단순한 경제 하에서는, 모두가 각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어떤 일을 해요. 한 사람이(어떤 이가) 기타를 치고,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또 한 사람은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농장을 경영하고, 한 사람은 컴퓨터에 열중하고, 또 한 사람은 빵을 굽고, 또 어떤 사람은 가축을 가공하고 등등으로요. 그들 모두는 기술(혹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 모두는 자신이 정말로 하기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

<sup>8</sup> 현대 경제 시스템과 연관해서 볼 때, 〈비공식 경제〉는 노동의 교환, 즉 경제적 교환이 화폐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제의 일부예요. 비공식 경제를 공식경제, 그리고 〈지하 경제 underground economy〉와 대조해보세요.

있으며, 모두가 매일같이 일어나 그들의 일상에 그 기술들을 적용시켜요. 천 명으로 이뤄진 작은 규모의 경제 속에서, 각각의 개인은 어떤 전문적인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 소질과 재능을 그들의 공동체에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일인데, 왜냐하면 아무도 똑같이 앓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건물을 짓고 싶어하지 않고, 모두가 하루 종일 앉아서 쓰는 걸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우리 모두가 경제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서로 교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노동을 교환할까요?

그래요, 제가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물물교환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물물교환—즉, 제가 당신에게 집을 지어주면, 당신은 제게 평생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꽤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물교환은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동네 목수가 채식주의자라고 쳐봐요. 그리고 만약 한 정육업자가 유일하게 가진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목수에겐 참을 수 없이 구역질



나게 하는 물품—즉, 죽은 고기—이라면 그 고기 판매업자는 어떻게 건축된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뭔지 알겠죠.

돈으로 들어가보죠.

돈, 돈, 돈

돈은 물물교환 시스템에 비하면 발전된 것인데 왜냐하면 돈이 〈노동을 추상화 하였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최소한 어느 정도 돈에 기반을 두었을 때—즉, 어느 정도 화폐화 되었을 때, 여러분이 교환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확장돼요. 돈은 근본적으로 더 많은 유동성과 효율적인 노동 교환 시스템을 창조해요. 목수에게 죽은 고기를 지불하는 대신에, 이제 정육업자는 목수가 건강에 좋은 채소를 살수 있는 현금으로 지불하지요. 이것은 꺾 먹고 알 먹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상황 win-win situation〉 이예요. 정육업자는 비록 목수가 물물교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게 돼요. 목수 또한 이득을 보죠. 그에게 있어선 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음식을 살 수 있고, 새 차, 도구, 기타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돈은 경제의 유통유나 몸 속의 혈액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노동력의 평가 도구로써 돈은 정말로 더욱  
능률적이고 유동적인 경제 교역을 가능케 해줘요.

돈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돈은 간단하게 말해서 <추상화된 노동 abstracted labour>이에요.

돈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돈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악의 뿌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 돈의 출처

그래서, 돈은 노동이고, 경제란 노동을 교환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면,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이것은 허공에서 느닷없이 확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도 아니에요. 돈은 두 단계의  
과정으로 탄생하게 돼요. 첫째, <누군가> 돈을 <만들어요>. 만약 그것이  
종이 지폐라면 우리는 특별한 잉크가 있는 프레스 기계에 종이를  
통과시키는 등의 일을 해요. 만약 그것이 금속 돈이라면 로고나 어떤

숫자를 넣어 찍어내요. 그리고 난 후 우리는 〈가치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주목할 만하게도, 여러분이 돈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금이 되든 납이 되든 돌이 되든지는 상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조각이나 저 금속덩어리가 일정한 양의 노동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에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확실한 가치를 지니게 되며, 이게 다예요. 일단 여러분이 노동의 추상화에 동의하고, 그렇게 추상화된 노동을 어떤 유형의 상징물에 부여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값다 붙일 수 있는 상징물과, 그 상징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전부예요. 자, 이제 됐어요.

그것은 전부 일치의 문제예요.

만약 제가 파란 종이 한 장을 당신에게 주면서 이걸 1000 노동 단위 unit—한 노동 단위당 한 시간의 노동으로 가정—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당신도 그것에 동의한다면, 일은 그렇게 굴러가게 돼요.

## 돈의 가치

지금 떠오르는 질문을 추측해보건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즉, 얼마나 우리의 교환 도구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나타내게 할 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치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가치가 그 도구의 고유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종이 한 장이 자동적으로 1000 단위의 노동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종이 지폐와 같은 것에 있어, 그것은 눈이 부시리만큼 명확해요. 거대한 제조 공장에서 자동화된 기계로 인쇄된 작은 회색 빛 흰 종이 한 장의 가치는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으로 아마도 대략 .001 센트 만큼의 가치쯤 될 거예요. 아마도 여러 세기에 걸쳐 <가치를 지니도록> 만들어졌을 금, 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다른 교환의 도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라 말할 하든, 금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적은 <노동의 가치 labor value><sup>9</sup> 만을 지닐 뿐인데, 그것은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들어간 총 노동량일 뿐이지, 그 외에는 별 가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금, 종이, 빛나는 하얀 돌들 또한 어떤 것들이 <뭔가 더> 가치가 있다고 동의를 했을 때만이, 그것들을 진행하는데 투입된 노동의 가치 이상의 <화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그것이 노동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보게 될까요? 음, 이 질문은 나중에

---

<sup>9</sup> [http://www.thespiritwiki.com/index.php/Labour\\_Value](http://www.thespiritwiki.com/index.php/Labour_Value)를 참고하세요.

미루고 대신 간단한 <돈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중해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에 가치를 부여할까요?

뭐, 비록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흑마술이나 고도의 기술(rocket Science) 따위를 요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살펴봤듯이, 돈의 실제적인 노동가치는 단순히 우리가(여기에서 <우리>는 교환과 관련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돈이 나타낸다고 동의한 노동의 총량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럼 우린 어떻게 돈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뭐, 이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말해 볼게요. 돈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교환되는 노동량에 관련되어 결정이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한 소리로 들린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렇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말해 볼게요. 여러분은 100 명으로 된 어떤 작은 경제를 가지고 있고, 그 경제를 화폐화 — monetize, 즉 교환의 초기 형태로서 물물교환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첨가하는 것 — 시키고 싶어해요. 돈은 얼마만큼 들여올까요? 음, 당신은 경제에 참여하는 100 명의

사람들의 전체 노동 생산량을 정확히 나타낼 만큼의 돈을 만들어  
들여오길 원할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각 한 시간의 노동을 노동의  
한 단위로 측정하고—1 달러/단위=한 시간의 노동,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4 시간, 일주일에 7 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작은 경제를 충분히 화폐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은  
사회의 일년 전체의 노동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한 사람당 일 년씩 약  
1,460 단위, 즉,  $4 \times 365 = 1,460$  단위를 도입해야만 해요. 100 명으로 된  
우리의 작은 경제 안에서 돌게 되는 돈은 합쳐서 약 146,000 단위—  
 $1460 \times 100 = 146,000$ —가 될 거예요.

각각의 낱장의 지폐로 말할 거 같으면, 그건 경제 안에서의 돈의  
전체 가치와 관련되어 결정이 되요. 여러분이 인플레이션 이력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각각의 개별적인 낱장의  
지폐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그것이 얼마만큼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145 장의 천  
달러 지폐를 사용하여 우리의 작은 경제에서 필요한 십사만 오천  
단위의 돈을 유통시킬 수 있어요. 이 경우에, 각 지폐 한 장은  
1000 단위의 노동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것을  
쪼개서 145,000 장의 일 달러 지폐로 유통시킬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각 지폐는 1 달러의 가치를 지녀요. 혹은 당신이 이 둘을 조합  
시킬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여러분은 사람들이 각각의 돈의 가치를

알아 볼 수 있게끔 화폐를 찍어내야 해요. 여하튼, 〈각 개별적인 지폐의 가치는 한 경제안에서 전체 노동의 생산량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경제안에서 돈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총괄적으로 경제 안에서의 노동의 양을 봐야 하고, 그런 다음 돈의 양으로 그것을 나누면 돼요.

## 3 장. 돈과 관련된 문제들

### 일반적인 문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화폐경제는 여러 가지로 유익해요; 하지만 거기엔 잠재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복잡한 경제상태에서는 어떤 것의 정확한 노동 가치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단 한 개의 품목을 위해 정확히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빵 한 덩어리의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기 쉬워요. 토론을 위해서, 한 빵 가게 주인은 작은 오븐으로 3 시간 동안 청소를 포함해 9 개의 빵을 만든다고 해요. 이 경우에 한 시간의 노동이 한 단위의 돈과 동등하다고 가정한다면, 각 한 덩어리의 빵의 가치는 약 0.33 단위의 돈(한 시간의 노동에 약 3 개의 빵으로 계산해요) 더하기 밀가루, 이스트, 버터, 가열기구 등의 비용이에요. 하지만 컴퓨터 칩인 경우엔 얼마의 노동이 들어가는지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디자인, 설계, 제작, 유통, 판매 기타 등 때문이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칩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노동들이 칩의 실제 비용으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겨우 어림 잡는 정도로만 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예요.

상품에 대해 지불해야 할 돈의 액수를 추정하는 문제들에 더하여, 자율적인-규제 self-regulation 의 문제 역시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질 돈을 버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일년 동안 일하면 일만 단위 노동의 돈을 얻게 되겠지만, 실제로 고작 5천시간만 일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하는 것과 사회에 기여 하는 것보다 파티나 불가불가(역주: boinking, 성행위의 속어)에 더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그래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는 문제가 그리 크지 않고 비교적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화 과정을 바로잡고, 돈의 참된 의미를 강조하며(즉 노동을 담는 도구로써), 공익에 서로 기여할 것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는 것을 감사해 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예요.

## 축적 accumulation

상품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람들이 경제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문제들은 간단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작은 지구 공동체의 일반적인 삶의 조직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만한 돈과 관련된 다루기 어렵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돈의 축적이예요.

그러면 축적이란 무엇일까요?

음, 축적이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모으는 행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가져가는 행위이며, 예를 들면, 당신 집의 선반 위에 두는 것을 말해요.

여기까지 문제 될 것 없죠, 맞나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제가 가족들과 함께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우리는 그곳의 장인들이 만든 많은 수공예품들을 샀어요. 우리는 우리 돈을 그들의 노동—즉, 장인들이 만든 수공예품—과 교환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 벽에 그들의 노동을 걸어 두었어요. 비록 우리 책 선반에 있는 공예품들은 예술적인 물건들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한 일은 노동을 축적한 것이죠.

우리자신을 훌륭한 예술작품들과 수공예품들로 둘러 쌓는 건 멋진 일이에요.

교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이상엔 아무 문제 될게 없지요.

물론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축적하기가 훨씬 쉬워요. 게다가 어떤 것들은 축적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아내는 그녀가 받는 마사지를 축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아주 많은 코끼리 조각 상들과 부족 탈들이 어질러지거나 난장판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그것들을 보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선반이나 보관함을 사야만 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러한 노동 축적의 난해함은 물물교환을 기반으로 한 사회 속에서 축적을 일반적으로 하찮은 짓으로 만들었어요<sup>10</sup>.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위해 일하고, 삶을 좀

---

<sup>10</sup> 물론 이것은 그다지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축적과 관계된 문제는 화폐화되지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조금만 축적하고 그 이상 선을 크게 넘지 않았어요. 물물교환 사회에서는 〈고질적인 한계 built-in limitation〉가 있어요.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빵이나 망치나 컴퓨터나 수공예품들을 축적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아, 그러나 화폐경제 안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화폐경제는 축적하는데 고질적인 제한 같은 게 없으니까요. 사실 화폐 경제 안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노동력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백 만원짜리 지폐, 일억짜리 지폐, 십억짜리 지폐를 인쇄할 수 있어요. 이건 그저 상관이 없어요. 화폐경제에서 돈의 가치—즉, 그것이 나타내는 노동량—는 상품들의 상호적인 교환보다는 간단한 합의의 행위를 기초로 하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원하는 만큼의 노동량—즉, 돈—을 축적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백만원짜리 지폐가 아주 많은 노동 단위의 값어치가 있다고 믿는 한 여러분은 축적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런 우스운 짓을 하고 싶어 할까요?

---

않은 경제나 혹은 화폐화 되지 않았다가 현대에 지구촌 경제에서 화폐화된 경제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실 물물교환이 기반이 된 경제에서 축적은 꺼려지는 경향을 보여요. 한 예로, 포틀래치 Potlatch 라는 원주민의 습관에서 그들의 목표는 줄 수 있는 만큼 많은 것을 내 주는 것이었어요.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Potlatch>>

## 타락 The Fall

자, 여러분이 왜 돈을 축적하고 싶은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노동력의 고유한 본질과 가능성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있어요.

우리 작은 경제 안에서 화폐가 통용된 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엄격히 공정한 기준보다 아주 약간의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생각을 한다고 상상해봐요. 예를 들면, 빵 한 덩어리에 0.33 노동단위(빵의 실제 노동 비용)를 청구하는 대신에, 이제 빵 가게 주인은—우리 그를 〈조 Joe〉라고 불러요, 0.66 노동단위(실제 비용의 2 배) 혹은 0.99(실제 비용의 3 배) 혹은 그 이상을 청구하기 시작해요. 조 Joe 는 이게 정말 얼마 안되고, 이것이 아무것도,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장을 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약간의 여분의 노동을 축적하는 게 무슨 그리 해가 될까라고 미루어 짐작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아주 큰 문제였어요.

사실 이걸 세상의 종말에 가까운 문제예요<sup>11</sup> ; 그러나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외관상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것이 들춰지기까진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 축적을 하려는 그의 계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이야기를 앞으로 건너 뛰어서 일년 뒤의 조 Joe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의 빵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이 청구한 1 년 후에, 조 Joe 는 상당의 추가 노동을 축적했었을 거예요.

얼마나요?

글쎄요, 만약 그가 그의 빵의 실제 비용의 세배를 청구한다면, 1 년 후 그는 장사에 원래 투입해야 할 금액의 두 배를 축적하게 돼요. 만약 어떤 일반인이 년당 일천오백 단위를 소모한다면, 〈조 Joe〉는 연말에

---

<sup>11</sup>〈종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종말〉이에요. 축적의 시작으로 설립된 이 역동적인 힘은 만약에 억제되지 않고, 될 대로 남겨지게 된다면 인류의 문명을 불가피한 끝으로 이르게 해요. 환경적 압박과 분노, 절망은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문명의 붕괴를 초래하니까요. 이 말이 지금 강력한 발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 작은 책자를 끝까지 읽고 난 후라면, 축적이 정말 인류의 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좀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가 가질 제로(0)에 가까운 잔액을 가지는 대신에, 모두에게 빵 비용의 세 배를 청구하게 되면서 삼 천 노동단위로 인한 흑자를 보게 되지요.

우와!

이건 빵 가게 주인에겐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 축적된 그 모든 노동으로 그가 뭘 할 수 있는 지들을 깨닫게 될 때면 더욱 신날 거예요.

## 권력

다시 한번,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예요.

지갑 속의 달러 지폐를 한번 잘 보세요.

돈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돈은 노동을 담는 그릇이며, 그것이 쌓이게 되면 돈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명령할—즉, 구입할—능력을 갖게 돼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추가된 돈이 우리의 빵 가게 주인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실제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측정 가능한 <권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신입 부자인 빵 가게 주인에게 그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예요. 삼천 단위의 여분의

노동을 통해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휴가를 연장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더 큰 집을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 그의 집을 청소해줄 청소도우미까지 고용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를 대신해 빵을 구워줄 조수를 뽑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요?!

그리고 그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추상화된 노동 시간을 나타나는 관계로, 돈을 벌기 위해 기꺼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조 Joe 는 원하는 건 무슨 이든지 할 수 있어요<sup>12</sup>.

---

<sup>12</sup> 매우 흥미롭게도, 권력은 화폐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동등한 조건을 가정해본다면(즉, 저는 제가 필요한 돈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이 방정식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제가 하기 싫어하는 무언가를 하도록 제게 하도록 요구할 때, 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로 제가 당신의 돈이 필요한데, 제가 실업자거나, 빈털터리이거나, 제 은행 계좌가 이자로 인해 고갈되었거나, 나의 새끼들을 먹여주고 보호해줘야 하거나 혹은 내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데, 당신이 돈을 쥐고 있다면, 그때 당신에게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부탁하면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생각 하지도 않았을 일들을 자주하게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아마도 매춘이나 포르노와 같이 마음을 덜 끄는 다른 직업들을 생각하고 싶어할 지도 몰라요.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걸 하나요? 만약 당신이 원하는 걸 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졌다면, 대신 뭘 하고 싶은가요? 이것은 질문하기에 아주 멋진 질문인데 이것은 제대로 된 화폐경제 안에서의 삶이란 어떠한지 지표를 던져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경제가 올바르게 화폐화 되었다면(즉 돈이 돌기에 충분 하지 않은 곳까지



더욱 중요한 점은, 그는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다른 사람에겐 없는 <권력>을 가졌어요.

조는 그것의 이익과 윤리 모두를 따져보기 위한 연말 정산에서 잠시 멈추고는 「이거 끝내주는군」 하고 생각했어요. 책을 들여다보고, 그의 주변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를 아는 자기 주변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은 달라진 자신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빵에서 약간의 추가 비용을 더 청구할 생각을 했고, 연말인 지금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 됐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무도 피해를 입은 것 같지 않고,」 그가 알고 있는 한은, 「좀 더 넓은 사회적 관점에서 봐도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

---

탐욕적으로 빨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재 사람들이 하는 많은 직업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라고 강요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이 짧은 경제논문을 향해 거쳐 나아 갈 때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해가 될 게 뭐가 있담!」 그는 결심했어요.

「그래 맞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신경 쓸 유일한 문제는 저 여분의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지.」 조는 잠시 생각하고 숙고한 끝에 그가 축적한 여분의 노동단위를 그가 사는 곳 근처의, 다른 사람들 집 크기의 두 배가 되는, 동네 언덕 꼭대기에, 그가 사는 동네를 내려다 보고 있는 아름다운 대저택에 쓰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일년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가 그의 조그마한 축적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추가로 드는 물품들이나 노동시간 혹은 언덕 위로 물품들을 끌고 가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에 지불할 돈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조는 현금을 가졌으며 이제 언덕 꼭대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그러자 그가 속한 지역사회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질문이 시작될 시점이에요.

「이봐 빵집 양반, 도대체 이게 다 뭘 일이어?」 그의 친구가 물었어요.

「어떻게 용케 저렇게 큰 집을 지었다냐?」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가 그의 성공의 (진짜)비밀을 죄다 실토하고 털어놔야 할까요? 아님 계속 노동을 축척하기 위해서 진실을 숨겨야 할까요? 그는 실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연루되는 것이 싫었어요. 그가 만약 실토하게 된다면, 좋은 시절은 이제 끝장이고 그의 무임승차는 물 건너 가게 될 것임이 계산 되었어요. 결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방관한 채로 그가 빵에 바가지를 씌우게끔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에게 꽤 열 받을 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길, 그들은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지도 모르니 그러면 정말 욕 나오게 될 거라고 빵 가게 주인 조는 생각했어요. 3000 단위 노동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것은 그가 내년에 세 배나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질문에 불구하고 여기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의 사소한 투덜거림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큰 집을 가진 게 뭐 어때?」 그는 의문을 던져 보아요.

「피해 준거나 있나?」

## **비밀모임 A Private Party**

그렇다면 조는 어찌 해야 하나요?

이제, 그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어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해대는데, 그는 응답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걸 공표해야 하는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따금 강연을 하고 그의 성공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는 대신에, 옳은 일을 하는 대신에, 그는 다만 소수의 사람에게만 먼저 얘기하는 편이 오히려 좋겠다고 사회에 알렸어요.

「이건 설명하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는 그의 동료 사회 일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몇 사람에게 먼저 예기를 하고 그 후에 그들이 여러분께 보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곤 물론 아무도 여기서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사회 일원들은 <조가 이게 복잡하고 그에게 약간의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회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으니, 아무도 그 어떤 우려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조가 한 짓이에요.

어느 날 밤, 그는 신중히 고른 몇몇의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저녁식사 파티에 초대했어요. 그는 목수—그의 집을 짓는데 추가 비용을 지불했던—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을 호화스럽고 잘 차려진 진수성찬 저녁식사에 초대하고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썼어요.



그는 축적한 노동단위의 몇 천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례 한 적이 없는 파티를 열기 위해 대 집단의 사람들을 고용하였어요. 그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볼만한

광경이었는데 파티가 끝날 때쯤 조와 그의 친구들은 최고급의 브랜디를 마시기 위해 앉았어요. 한가한 수다가 오고 가는 동안 조는 브랜디가 각각의 귀빈들의 몸과 마음에 퍼져 후끈 달아오를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마침 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일어서서 건배를 제의했어요.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는 외쳤어요. 「오늘밤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게 되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만찬과 흠잡을 데 없는 동료들과 함께 저는 제 생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열렬히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업얘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엄숙하게 외쳤어요.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는 말했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대저택을 어떻게 여러분도 가질 수 있고, 오늘밤과 같은 밤을 매일 밤 만들 수 있는지를 예기해준다면, 제 얘기에 흥미를 느끼시겠습니까?」

그의 친구들은 흥분이 되었어요.

「당연하지요.」 그들은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잖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려고 말이오.」

「그렇습니다.」 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말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것 비밀로 할 때에만 작동이 됩니다!」

이 말이 끝나자 완전한 충격의 기색이 방안을 맴돌았어요.

좌중은 웅성거렸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는 한번도 비밀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납득할만하게도 조금은 조심스러웠지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걱정스러워 했지만, 조는 손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잔에 브랜디를 더 따라주면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아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조는 말했어요.

「모두가 승리하게 되지요!」 그는 열정적으로 그의 머리를 끄덕이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알아내는데 일년이 걸렸고 여러분 역시 일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여러분은 일년 동안 노력해야 하고,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그의 친한 친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내내 그는 계속해서 잔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아주 간간이 이의가 생길 때면 조는 잘 구슬렸고



결국 말미에 와서는 모두가 무엇이 해가 될 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빵집 사장 말이 맞아,」 그들이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빠지는 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누가 매일 이런 파티를 마다하고 싶겠어?」

그래서 그들은 악수를 하고 서로를 위해 건배하고 자축하면서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동의했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앉으면서 일년 동안 노력하기로요.

결국, 모두가 조를 신뢰하게 됐어요.

그는 그들의 친구이고,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느 쪽도 유리한 상황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줬으니까요.

## 진실은?

유일한 문제는 언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이번 빵집 사장 건에 관한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이 파티를 연 이유였고 그래서 그들은 뭔가 손을 써야 했지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초대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조는 물었어요.

모두들 동의하긴 했지만, 이건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 시간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했고 마침내 목수가 펄쩍 뛰며 흥분하여 외쳤어요. 「알아냈다, 알아냈다, 알아냈어!!!」

「우린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모두 이해하기 힘든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간의 조사를 하면서 자세히 살펴 보려면 일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그게 정확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모두가 동의했고, 정말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그에

따라 그들은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들 중에 가장 적합한 공개 연사를 뽑아서 날짜를 잡은 후에 그들이 비밀리 논의한 결과를 공개할 공청회를 소집했어요.

그건 언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근거리는 일이었어요. 모두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대했지요.

모두가 부자가 되는 조의 대단한 비밀을 배우길 기대했고,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곧 무엇이 발표될까 들떠 하며 마을 광장 안에 모였어요.

연사가 연단에 올랐어요.....

그는 모여있는 청중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지역 사회의 시민들이여,」 연사가 읊었어요. 「조는 위대한 번영의 비밀을 뜻밖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빵 가게 주인은 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군중들은 침묵했고 모든 시선이 동시에 연사의 입에 고정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연사가 말했어요. 「이건 복잡한 문제이고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연구해 왔는데 이것은 상품 시세지수의 상대적인 변동에다가 교환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를 더하고, 게다가 산출물에 대조되는 투입 비용까지 추가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봅시다.」 연사는 단조로운 어조로 읊었어요.

군중들은 어리둥절한 듯 보였어요.

「이것은 노동 투입량의 비용과 관계된 상품가격의 비전면적 물가연동제의 결과입니다.」

군중들은 이제 좌절한 듯 보였어요.

연설자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가 말했어요. 「이건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우리는 꼭 알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하나 발족했는데 우린 그것을 〈비밀조사 조직 The Institute of Fiduciary Investigation〉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조직 The Institute〉이라고 명할 것입니다.」 그는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잡한 과정의 속성을 밝혀내기까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할 것이며,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 불가사의하고 새로운 돈 창출 기법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일년 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 손을 들어 재빨리 말하고는 연단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몸을 돌렸어요.

물론 혼란스러운 점이 조금 있었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빵집 주인이 대저택을 창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이 얻은 것은

내년에 설명하겠다는 약속뿐이었죠. 그렇지만 아직은 연설자가 했던 이야기로도 충분히 적절해 보였어요. 연사가 설명하려고 애쓴 것을 듣고 나니 정말로 이게 복잡한 과정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러니 뭐 어때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했고 그래서 언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연설자의 말을 불신하거나 연사가 말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그 설명을 받아들였고 다음 보고를 기다리기 위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지요. 한편, 조의 특별 파티에 함께 있었던 일당들은 빵집 주인의 지령대로 서서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 사회계급

그리고 당연하게도, 언덕 위에 사는 일당들이 그들의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자마자 반전이 일어났어요. 겨우 일년 동안의 미묘한 축적이 있는 후, 본래의 파티에 있었던 모든 일당들은 언덕 위 그들의 빵 사장 친구 집 바로 옆에 나란히 환상적인 집들을 지었어요.

「훌륭하군.」 그들은 이제 주간 특별 집회에서 자화자찬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그들은 말했어요. 「조가 옳았어.」

그들은 「우리가 모두 언덕 위로 이사 와서, 더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음식을 먹고, 고급 와인을 마시게 됐는데도 경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물론 사회가 다른 취미와 다른 생활방식의 별개의 두 그룹의 사람들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실만 빼고 말이겠지요.

나뉘어진 선은 명확했어요.

거대한 큰 집들과 헤쁜 파티들이 있는 언덕 위에 사는 세대와 그 언덕 아래에 사는 세대로요.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게 뭐 대수인가?」 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해 하잖아」 라고 그들은 말했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두 해가 저물어가면서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언덕 아래에 사는 사람들과 더 이상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사적인 모임과 그들만의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 두 그룹은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개 소득과 편의에 있어서의 차이였지요.

언덕 아래 사람들은 언덕 위의 사람들의 무절제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의 친구였던 언덕 위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가난했고 주변의 사치스러움 때문에 불쾌해 졌어요.

솔직히 그렇게 따져 본다면 그들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말로 따지고 보자, 그들은 약간 심술이 나기 시작했죠.

저들의 환상적인 집들과 사치스러운 파티들은 빵 장수의 집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음을 계속 해서 떠올리게 했으니깐요. 그들이 받은 거라곤 약속뿐이고,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 중에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더 멀어지는 사회적 차이뿐이었어요.

「이건 옳지 않아,」 언덕 아래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불쾌감을 보이거나 언덕 위의 가족 중 하나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난처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첫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들이 말했어요.

「이젠 빵가게 주인과 위에서 살게 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죠?」

「어떻게 된 거요!?!」 그들은 점점 더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불만과 불편한 심기는 두말할 것 없이 언덕 위의 사람들을 다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조직의 선행에 감사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으니깐요!

보고서도 거의 끝나가고요.

당연히 만족스런 답을 담고 있을 거예요.

## 보고서

하지만 슬프게도, 마침내 보고서가 개봉되었을 때, 만족시킬 만한 거라곤 눈 씻고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보고서는 처음 했던 연설보다 천 배나 더 혼란스러운 각종 종잡을 수 없는 말과 전문용어, 헛소리, 까다로운 표현들로 가득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멍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열 페이지쯤에선 더 없는 지루함과 애매모함으로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식 불명상태나 다름 없었어요. 이것은 아마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군중들로부터 어떠한 어려운 질문도 대답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음을 의미하겠죠. 이런 수수께끼 같은 뜻 모를 자료에 어떻게 질문을 내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까다로운 표현들로 된 건 아니었어요. 보고서의 서두에 삽입된 한 장의 요약문에는 크리스마스 날 내면의 그리스도를 깨우도록 우리를 부르는 종소리처럼 맑은 기록이 있었어요.

「문제들은 다각도로 얹혀있다」 라고 요약문은 시작했어요.

「상황은 복잡적이다.」

「변수들은 미정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요약문은 결론지었지요.

## 지식층 Intelligentsia

이제 물론 여러분이 언덕아래에 살면서 보고서를 읽고 만족하길 원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라면, 실망과 혼란, 분노를 감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결국 두 세 해가 지나갔고 고작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언덕 위의 사람들은 더욱 더 부유해지고, 더욱 더 사치스럽고, 시종일관 더욱 더 호화스러워 보이는 것이니까요.

솔직히, 속이 조금 언짢았어요.

그런데도 대다수의 언덕 아래 사람들은 이를 꼭 악물고서는 일터로 돌아갔어요. 결국에 가선 그들은 이 문제를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조직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니까요. 이것 말고 무슨 다른 방도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 소수의 언덕 아래 사람들은 암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몇몇은 모든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찌푸리고, 투덜대고, 불평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쏟아 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요?」「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저들도 무슨 일인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대저택들이 세워진 거냐고요?」 물론 이 모든 질문들과 분노는 언덕 위의 세대들을 약간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보고서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민해진 그들이 말했어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왜 다들 점점 흥분해서 저 난리야?」 그들은 분개하며 물었어요.

「저들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선동자들은 확실한 문제였고, 뭔가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했어요.

그들은 선동자들이 계속 휘젓고 다니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간 뒤늦게 실수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선동자들이 부채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산 될 것이 불 보듯 뻔했어요.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소동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음...

일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일당들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들만의 패거리 클럽의 특별한 모임을 소집했어요. 늘 그랬듯, 집사가 훌륭한 와인과 음식으로 저녁식사 시중을 들은 후에, 회장 조 Joe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일루미나티의 등굣개(역주: 계산적인 의미 내포, illuminated back scratchers) 내부 모임의 중추이자 가장 고결하고 위엄 있는 신사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고서는 만족감이나 명쾌한 결말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조가 말했어요.

「문제는 다각도로 얽혀있습니다.」 그는 마치 메아리가 울리듯 보고서의 결론을 되풀이했어요.

「상황은 복잡적입니다.」

「변수들은 미정입니다.」

「분명히,」 그는 말했어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언덕 아래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가 물었어요.

「조직이 명쾌한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답도, 만족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가 말했어요. 「언덕 아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들의 불만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한가지 제안할게 있습니다」 라고 그 빵집 주인은 재치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적절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선동자들은.....」 그는 여운을 주려는 듯이 말을 잠깐 멈췄어요.

「그 사람들은 보고서 내용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마저 점점 부추기고 있고.....」

「제가 생각 건데,」 조는 말했어요. 「그들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현명한 자들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의 눈은 모인 인사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조는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조직에 보탬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지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약간의 방향만 잡아주면, 잘만 하면 그들이 명쾌한 결론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이것은 끝내주는 생각이었어요.

선동자들은 대답을 원했고, 반대자들을 조직에 흡수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힌 다음,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주면 되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선동자들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조가 말했어요.

「그리고 언덕 아래에서의 그들의 영향력도 제거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문제는,」 조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들을 조직에 들어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이미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에 입을 모았을까요?

하지만, 조는 그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늘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사실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명쾌한 결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단지 지능이 낮은 장사꾼들이라고 말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의 지적인 훌륭한 솜씨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않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가 물었어요.

「그리고 단지 좀 더 구미가 당기는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말하길, 「우리는 그들에게 조그만 보너스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불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의 맛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해줄 겁니다」 라고 조는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지 않게 말이죠.」

「우리는 그들이 언덕 위의 이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는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곳은 너무 붐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턱에는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는 쾌활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편지가 배달되고, 보너스는 지급됐으며, 그 선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짐을 꾸려서 짧고 험난한 여정의 조직에서의 직장 생활과 언덕 중간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 세뇌 Indoctrination

이제, 그 새로운 지식층이 협회에 도착했을 때, 물론 성대한 환영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수한 와인과 미식가의 고급 음식, 신출내기들을 안내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분위기를 이끌어갈 카리스마 넘치는 기조연설자도 있었어요. 고급 와인과 음식들로 모두가 배를 채웠을 때, 그 연설자는 연단에 올라서서는 모여있는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승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 년 동안 씨름해왔습니다,」 연설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2 년 동안 밤 늦게까지 애를 썼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는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우리는 도표들에 쏟아 부어왔습니다.」

「우리는 추세들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확함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청중들을 향해 손을 들어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이상, 이제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명확한 결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정신과, 여러분의 진실을 향한 충심의 열의와 더불어,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선언했어요.

「하지만 먼저,」 연설자가 말했어요. 「<학습>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껏해야 2 년입니다.」 그녀는 모여있는 손님들로부터 피어 오르기 시작하는 질문들을 막기 위해 손을 들어 말했어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연설자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우리는 2 년 동안 수고해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진전을 만들어 냈죠.」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을 발전시켜왔고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각들과 개념들이 우리의 연구들을 계발할 것이며, 우리가 발견한 것들과 소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엔 새로운 개념이 많고 또한 이것이 복잡한 언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은, 먼저 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배워야만 합니다.」

「이미 있는걸 일부러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그러자 당연하게도 이 영광스러운 손님들은 동의했지요.

왜 안 그랬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조직의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잖아요. 그들은 돕기 위해 여기에 왔으니까요.

그 이상으로, 그들은 자신의 동료들을 신뢰했고, 이전에 앞선 것을 토대로 한다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데 동의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학습 기관에 입학해서 조직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언어들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서는, 배움의 첫날 아침을 밝고 상쾌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와인을 마시고 식사를 끝내고 정리를 하고는 얼른 잠자리에 들었어요.

## 교육

다음날 아침 그들은 눈을 뜨고선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그들은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도 그들은 공부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배운지 이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조직의 창립자와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조직의 창립자들은 그 선동자들이 그들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만족스러울 때에만 그들을 일에 착수시켰지요.

그렇게 새로운 전문가들은 밤늦게까지 애를 썼어요.

그들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들은 도표들에 애를 쏟았어요.....

그들은 추세를 분석했어요.....

.....하지만 매번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여전히 명확함이 부족했어요.

무언가가 항상 빠져 있었어요.

무언가가 그냥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개념적 틀 안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이따금씩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이 신출내기들이 조직의 창립자와 꼭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운 이후로, 보고서의 내용은 항상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을 말할 수 밖에 없었어요. 매년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특화된 종잡을 수 없는 전문어 투성이의 말과 기술적인 개념들, 매년 더 복잡해져만 가는 경제적 <골칫거리> 가운데서, 언덕 아래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보고서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복잡한 문제로 연구가 더 필요함>

그리고 당연하게도, 언덕 아래 사람들은 매번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우 실망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덕 아래 사람들은 그들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정신태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매달리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하여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언덕 위의 사람들이 그들의 축적 실험을 계속하는 동안, 실망감을 묻어버리고 그들의 동지들을 신뢰하며 일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언덕 위의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날만 오지는 않았어요.

매년, 협회의 보고서가 공개될 때마다, 항상 그들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몇몇의 아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역시 괜찮은 것이, 매년 언덕 위의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선동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들을 조직에서 일하도록 초청했어요. 이것은 완벽한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어느 날 조직이 너무 커져서 언덕 위의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도저히 감당 할 수 없게 되는 그 날까지 눈부실 정도로 잘 작동했어요. 그리고 그 날, 조는

특별 회의를 소집했어요.

## 과세 Taxation

「가장 빛나고 영예로우신 형제들이여,」 그가 말했어요. 「갑자기  
두각을 나타낸 문제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의로부터.....」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주머니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잘 진행돼 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현재 조직은 성장 중이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우리가  
자비로써 호의를 베풀기에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물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조직을 없앤다거나 경영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조직은 매년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연간 보고서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그는 말했어요. 「그것은 저 아래에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어넣어둘 훌륭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는 말했어요. 「협회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는, 그리고 이 비용 문제에서 우리를 구제해줄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는 주변의 걱정스런 얼굴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언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히죽 웃으며 말했어요.

「어쨌든,」 그가 말했어요. 「조직은 우리가 아닌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는 주위를 둘러싼 모든 부를 감싸 안으려는 듯 말했어요.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빵집 주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단지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의 설명을 들은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최고의 대중 연설자를 고용하고 언덕 아래의 사람들을 불러 집회를 열었어요.

연사가 연단에 올라 말했어요.....

「이것은 위대한 잠재력의 시간입니다,」 그가 외쳤어요.

「이것은 위대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언덕 위의 저택들을 가리키며 연사가 말했어요.

「열심과 불굴의 투지가 지어낸 저 가능성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협회를 가리키며 연사가 말했어요. 「여러분께 그 잠재력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저 작업들을 말입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밀어내는 듯이 청중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감사와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매년 협회는 성장해 왔고 매년 비용도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일주일에 단지 몇 십 원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겨우 느낄까 말까 할 정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연사는 말했어요. 「매주 조금씩만 더 일을 하면 언제든지 메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언덕 아래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들은 언덕 위의 사람들을 신뢰했어요.

그들은 조직의 사람들을 신뢰했어요.

그들도 눈을 가졌어요.

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짚은 알 수 있어요.

언덕 위의 사람들은 조직을 위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돈을 내왔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함과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언덕 위의 사람들의 어깨에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고 언덕 아래 사람들은 동의했어요.

그들이 기부하는 것은 그저 공평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에 몇 시간만 더 일하는 거라면,」 언덕 아래 사람들이 말했어요.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그들은 동의했고, 언덕 위의 사람들과 함께 〈정부 government〉라고 부르는, 관리 기구를 창설했으며, 이 정부는 〈공공기관〉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언덕 아래 사람들에게 세금을 청구했어요.

이제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는데, 이유는 이제는 조직의 자금이 대중의 노동과 연결 됐기 때문에 이제 조직이 무제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매년 조직은 새로운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매년 새로운 선동자들이 나타났어요.

매년 조직은 확장됐어요.

첫째로는, 경제학, 경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학문이에요.

다음은 공학, 제조 전문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학문이에요.

다음은 철학, 왜 이 세상이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뉘어져 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학문이에요.

다음은 역사, 언덕 위에 사는 이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설계된 학문이에요.

다음은 종교, 정당화 할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학문이에요.

다음은 심리학,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온순하게 유지해서 협회를 빠른 시일 내에 도처에 늘려가기 위함인데, 이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조직을 통해서 불만사안을 관리하고 애매모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운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환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모든 게 잘 돌아간 덕택에 언덕 위의 일당들은 이제 시스템 유지관리와 같은 다른 일도 다룰만한 여유가 생겼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모든 주의를 돌릴 수 있었어요.

## 4 장. 발전 Progress

축적!

어느 날 회의에서, 특별히 성대하게 치른 저녁 만찬 후에, 빵집 주인 조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건배를 위해 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 안 했나요?」

「피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크게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조가 말했어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서 우리가 가져온 변화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 이 언덕 위의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드라마틱하게 외쳤어요.

「우리의 집들은 건축술 혁명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리의 정원들은 창조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그는 말했어요, 「우리의 더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하합시다,」 조는 잔을 들어 건배하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그는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발전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 멈췄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조는 말했어요. 「우린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원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부와 번영을 백만 배로 늘릴  
수 있는 신세계질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입니다,」 그는 결론을  
지었어요.

## 제품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

「그리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어요,」 조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유토피아에 자금을 댈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우리가 짜내는 세금을 늘리는 것뿐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빵집 주인은 말했어요.

「단지 한가지 종류의 빵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말했어요.

「제가 능숙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빵만을 만드는 대신에, 저는 싼 원료를 가지고 주의와 정성을 덜 기울여 더 싼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덕 아래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가 말했어요. 「원료와 노동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 결과 저는 좀더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방안에 얼굴에 미소를 띄며 열심히 경청하는 얼굴들을 둘러 보았어요.

「더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또한 최고급 원료와 극진한 보살핌과 주의로 더 특별한 빵을 만들어서 그것에 프리미엄을 붙여 언덕의 높은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조가 말했어요.

「비용의 세배를 받는 대신 다섯 배를 받고 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가 그들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여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이것이 특별하다고 말해야 그것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가 말했어요. 「거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덕 아래의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와서 그들이 오직 살 수 있는 거라곤 싸구려 빵인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아마도 투덜대고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빵집 주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물론,」 빵장수는 말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투정을 줄이려면, 그냥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만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평을 하면 저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발전에 대해선 반대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빵집 주인이 말했어요, 「모든 것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좀더 일을 한다면.....」

「그들이 씹씹이를 줄인다면.....」

「그들이 돈을 저축한다면.....」

「그때 그들도 역시 더 특별한 빵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빵집 주인 조는 미소를 머금으며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그는 잔을 들며 물었어요.

「발전의 명목아래!」 그의 형제들이 빵집 주인과 건배를 하며 부르짖었고 그러고선 꿀꺽꿀꺽 단숨에 와인을 마셔댔어요.

## 왜곡

참으로,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언덕 위의 사람들은 축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품 차별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튼, 목표는 <발전>이고, 더 효율적일 만큼 더 많이 축적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발전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더욱 효율적인 축적을 할 수 있는 의견들을 공유했어요. 어느 주에, 그들은 <계획적 구식화 planned obsolescence>와 제품의 수명주기 product lifecycle 를 고안해 냈어요. 오래가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대신에, 감쪽같이 제품이 고장이 나게 하거나,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유행이 한물가도록 설계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언덕 아래 사람들로 알려진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상품구매를 하도록 꼼짝없이 묶어 버렸어요. 물론 계획적 구식화와 제품의 수명주기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해 주고, 특별한 빵을 사고, 낡아빠진 고물을 대체하며, 매년 새로운 유행을 따르게 하기 위해 언덕 아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지요. 또한 이것이 쓰레기 매립지를 겹만 번지르르한 질 낮은 소비재들과 고장 난 상품들로 포화상태를 만들고 자원을 게걸스럽게 해치운 탓에, 어머니 지구의 자원들은 더욱 더 압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조가 말했어요, 「<발전>을 위해서 치러야 할 적은 비용일 뿐입니다」라며 그들의 행위는 계속됐어요.

어느 주 week 에, 그들은 언덕아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비용을 더 적게 지불해서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생각을 고안해 냈어요. 물론, 이 생각은 언덕아래 사람들 사이에선 정말 인기 없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안대로라면 그들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겨우 근근이 버텨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언덕 위의 사람들은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을 세웠고, 사안대로 밀어부쳤어요. 그들은 노동을 단순화시키고, 근로자들을 일관적인 공장에 묶어버리고,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주요한 전문직의 수요를 낮췄어요. 그리고 별탈 없이 넘어 갈 나라에서는 아이들까지 노동력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물론, 위의 사람들은 이것의 불쾌한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라고 그들 스스로에게 말했고, 그들의 행위는 계속됐어요.

어느 주엔가, 위의 사람들은 아직도 언덕아래의 많은 사람들이 물물교환을 통해서 노동을 교환하는 비공식적인 경제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했고 이것은 나쁜 거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물물교환을 하면 축적이 불가능하고, 축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덕 위의 사람들은 물물교환은 감소되어야 하고 결국엔 제거되어야 된다고 결심했어요. 물론, 아래 사람들은 저항했어요. 그들의 시각에서 물물교환은 언제나 합법적인 형태의 거래였고, 그것을 포기하면 훗날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덕 위의 사람들은 완강했고, 발전이라는 명목아래서, 결국 물물교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조직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주된 경제 밖의 활동은 국가의 발전에 유해하다고 말하는 보고서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형식의 경제활동들의 집계를 시작하도록 정부에게 지시하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생산을 재편성했어요. 비공식적인 교환과 물물교환이 쉽고 자연스러운 작은 지방단위의 자급자족 경제구조 대신에, 생산을 분리시키고 전국을 하나의 생산 라인으로 전문화시켰어요. 그들은 바나나를 한 나라에서 재배하게 하고, 자동차는 다른 나라에서, 곡물은 세 번째 나라에서, 등등으로요. 이것은 훌륭했어요. 세계적으로 분산된 시장 안에서 당신은 수 천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로부터 음식을 얻어야 했고, 물물교환은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들의 삶은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해졌어요.

진실로,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그것은 계속 됐어요. 매 주, 언덕 위의 일당들은, 어떻게 세상에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만났고, 이따금씩 발전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고안해 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덕아래 사람들은 기껏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힘들게 일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언덕 위의 사람들이 말했어요. 「발전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돈이었어요. 문제가 나타나자, 언덕 위의 일당들은 불편할 정도로 빠른 현금흐름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어요.

문제는, 그것이 더럽고 구린 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웃기는 일이었어요. 추하고, 더럽고, 불결한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기에 언덕 위의 일당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소집했고, 긴 이야기를 간단히 줄이자면, 그들은 돈을 담아 둘 더 나은 보관함을 찾아냈어요.

## 귀금속

이것을 알아낸 사람은 석공 stonemason 이었어요.

어느 날, 그들의 특별하고 은밀한 모임들 중 하나에서, 그 석공은 수줍어하면서 그의 손을 들고는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제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둥그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는 커다랗고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박힌 아름다운 금반지를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손짓해서  
불렀어요.

그는 방안을 돌면서 반지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약 6개월 전에  
저의 현금 흐름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클럽의 회원들이 잔을 들고 그의 노고와 그의 풍부한 번영을 축하해  
주는 동안 잠시 멈칫하곤)

「하지만 전 따분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에겐 제  
시간을 때울 뭔가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장사를 통해 석공이 되었고, 귀금속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으며 이 빛나는 돌들이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잘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석공은 말했어요. 「제가 이 매끄러운 금속을 가지고  
구부리기도 하고 모양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석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저는 이 두 개를 결합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해냈지요.」

모두가 그의 손가락에 낀 돌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능숙한 솜씨가 필요하긴 하지요.」

「자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이것이 돈 더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모두는 동의했어요.

그것은 쌓아 놓는 돈보다 훨씬 더 예뻐요.

「하지만 어떻게 이것으로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글쎄요,」 석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작은 금속으로 덮인 돌들에 축적된 노동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보세요. 지폐의 가치는 단순히 합의의 문제이므로 우리는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 단위의 노동을 이 개개의 지폐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한계가 없는 거죠,」 그가 말했어요.

「이 예쁜 반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가치에 합의하는



것뿐이죠.....」 석공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석공의 얘기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은 눈살을 찌푸리고 못마땅한 얼굴을 했어요.

와글와글 떠들썩한 논의가 일어났고, 잠시 후에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이거 끝내주는군.»

하지만 질문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저장한 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물었어요.

석공은 웃으며 그의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 질문들을 예상하고 답을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 모든 현금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에 대해, 우리는 중앙 저장소 혹은 <은행>이란 것을 지어서 거기에 돈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금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에 관해서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형제들을 <위원회 α

council>에 임명하고 그들에게 가격의 결정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회, 혹은 원하신다면 이 <카르텔>이 우리에게 말 해줄 것입니다. <일 캐럿의 무게는 백만 노동의 단위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는 만큼 합의할 것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우린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형제들은 잠시 이에 대해 숙고하곤 이것이 매우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들은 어떤 불리한 점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은행을 세우고, 귀금속 카르텔을 형성하였고, 석공은 노동을 축적하고 저장할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에 착수했어요.

문제는 해결되었고,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죠!

언덕 위의 사람들은 축적을 위한 운영을 계속했고, 왜곡은 점점 더 높이 쌓여져 갔고, 언덕아래 사람들은 근근이 버티나가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언덕 위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진, 모든 일들이 완벽한 짜임새로 아름답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청천병력과도 같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 5 장. 위기

위기가 강타했을 때, 이건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었어요!

난생 처음 맞은 갑작스런 충격으로, 언덕아래 사람들은 일거리가 끊이고, 언덕 위의 밋 부리고 한가한 이들과는 달리, 밋대加里 없고 구식인 이들은 먹을 것을 충분히 사지도 못하고, 가정을 잃는 그런 등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우연히 발생했을 때,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오늘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데, 그 다음날엔 할 수가 없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위기가 강타할 때, 이걸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추악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슬프게도, 언덕아래 사람들은 아무도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덕 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명백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들의 작은 실험과정을 통해서, 언덕 위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경제의 모든 혈액을 빨아들여서 엄청난 돈을 축적해 왔어요. 그러니 실업은 뻔한 결과이죠. (이런!)

만약에 경제에서 나온 모든 돈이 언덕 위의 사람들에게 의해 빨아 먹혀서, 아무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살 돈이 없다면, 또 만약에 지나친 시장의 특수화로(역주: overspecialization, 생물진화에서 형태의 특수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마침내 멸종에 이르는 것), 물물교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로부터 계속 돈을 뽑아낸다면, 여러분은 서서히 사람들의 노동 교환 능력을 앗아가 버리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히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면.....

.....또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간 것을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그땐 대량 실업, 침체, 그리고 결국은 경제 공황으로 접어들게 돼요.

이것은 논리적이예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한 경제로부터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백만 명, 십억 명까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작은 축적 실험의 어이없는 꼴을 당한 거 말고는 단순히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거예요. 설사 모든 것을 다시 돌려 놓는다 해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제 말이 믿겨지지 않나요?

그럼 우리 작은 상상력 실험을 해 보도록 해요.

열 명의 사람으로 된 작은 경제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현재, 이들 열명 개개인이 십만 원(백 달러)씩 가지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그들의 노동을 교환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그를 프레드 Fred 라고 부르기로 해요, 한번에 조금씩 야금야금 경제로부터 돈을 뽑아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프레드는 세금으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윤을 남김으로써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을 억지로 밀치고 나가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돈이 뽑아내어 지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는 〈항상〉 똑같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돈이 적극적으로 뽑아내어 지는지에 따라 조만간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을 교환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교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다른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즉, 만약 프레드가 돈을 다시 경제에 돌려놓지 않는다고 할 경우, 어느 시점이 돼서 프레드는 이

모든 돈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직>을 하게 될 거예요—즉, 그들의 노동을 교환할 수 없어요. 운이 아주 좋아서 프레드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럼 이 시점에서 프레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프레드는 어떻게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해 나갈까요?

글쎄요, 정말로 이 시점에서 프레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거짓말 보태지 않고 100% 순수한 진실은 이래요. 만약 프레드가 바로 그 말라 비틀어진 혈액의 원기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인 나머지 발생한 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이 모든 역겨운 고통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뽑아낸 모든 돈을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풀어서 유통시켜야 해요.

이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다른 해결 방법은 없어요.

물론 그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원한다면, 그는 돈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거나, 혹은 그는 뛰어난 사람으로써 마땅히 대우 받을만한 값어치가 있다거나, 혹은 <깨끗하다거나> 등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프레드가 돈을 계속 간직하고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심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반창고를 붙이는 식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가 올바른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경제로부터 혈액을 빨아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시스템의 실패와 종말을 막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요?

만약 그가 옳은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요?

글쎄요, 그럼 우리의 친구인 프레드가 가지고 있는 얼마의 선택권들을 함께 살펴보지 않을까요?

프레드가 가진 한가지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프레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살수가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극도로 절박해져 푼돈이라도 벌려고—  
그 결과 프레드의 '구매력'을 확장시키는 꼴이죠— 필사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 접근은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굶주림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은 중무장한 대규모 시위대로 옮겨갈  
테니까요.

바로 프랑스 귀족정치를 참고해보세요.

만약 그가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돈을 계속 쥐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라고는 케이크밖에 남지 않은 시점까지 갔을 때, 결국에  
사람들은 쪼들릴 대로 쪼들려서 그들의 가족들은 지독한 비탄에 빠진  
나머지, 그를 단두대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썩둑 썩둑!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은 그가 두 번 다시 해선 안될 실수가  
되겠죠.

그럼, 그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음, 만약 여러분이 자기가 프레드라고 상상해 볼 수 있고, 자신의

전부인 머리가 잘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돈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만  
해요.

때가 되면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은 신중하게 되돌려져야 해요.

제 말은, 그냥 다시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경제 안의 사람들에게 그냥 가까이 가서, 자 여기 있으니  
다시 시작해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우선 사람들은 왜 여러분이 돈을 주는지 곧바로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착취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걸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특권에 종지부를 찍고  
여러분의 탐욕으로 초래된 이 만성적인 고통의 순환을 피하게 될  
거예요.

흠.....

따라서, 만약 프레드가 그의 작은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  
그가 갖다 놓은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가 훔쳐 온 돈을

경제에 다시 살금살금 슬쩍 돌려 놓는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완전히 열 받아서 야수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이에요. 우선  
대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

이제 실업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면서 경제에 다시 돈을  
되돌려놓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대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은 내 것이니까 다시 갚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은 여러분 것이라는 환상이 지속되고,  
여러분은 시스템에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수혈을 주입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의 탐욕이  
지나쳐서 높은 이자를 매기게 되면 말이죠.

생각해 보도록 해요.

경제로부터 모든 돈을 뽑아내고 경제를 심장마비로 몰아넣은 후에,  
프레드는 그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요. 「이봐요 여러분,  
제가 도와 드릴게요. 제가 당신들께 각각 십 만원씩 빌려드릴 테니  
이제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세요.」 (대중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죠)  
「.....대신 저에게 이자를 갚는다는 한에서 말이죠.」 그가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십 만원을 드릴 테니, 여러분은 제게 십일 만원을

값아야 합니다.」

〈어리둥절한 표정〉

「왜 이자를 값아야 하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것은,」 프레드가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돈을 쓰게 해 준다면, 저는 그만큼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제 돈을 사용하는 동안에, 저는 그만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주 공평한 일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제가 뭔가를 돌려 받는 게 말이죠.」

사람들은 딱히 다른 것을 선택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했어요.

이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잘 될 것도 같았어요.

프레드는 돈을 빌려주고, 피는 다시 경제의 혈관에 수혈이 되었으며, 모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새롭게 되찾은 순환 경제의 건강은 전혀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사실 전에 걸렸던 시간의 절반  
만에 경제는 다시 한번 파멸을 겪게  
돼지요.

뭐가 문제냐고요?

프레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의  
흡혈귀 송곳니를 경제의 혈류 속에  
박아 넣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뽑아내는 활동에 종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금 〈그리고 또한〉 이자지급을 받아냄으로써 체액을 몸  
밖으로 서서히 빨아내 핏기가 말라가고 있었어요.

당신도 문제를 볼 수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프레드는 현재  
이전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경제로부터 돈을 뽑아내고 있고,  
그리하여 이제는 반시간만에 붕괴가 일어났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프레드가 경제로부터 모든 돈을 뽑아냈는데도  
차감잔액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모든 자금이 프레드의 손에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드가 빌려준 돈의 이자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빚지고 있어요.

## 빚 (DEBT)

프레드는 빚의 사악함을 발견했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어요.

사상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는 빚의 부조리에 직면하는 아홉 명의 사람들에게도 문제였지만, 프레드에게도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설사 경제는 붕괴되고 있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의 돈을 더 대출해 준다는 것은 그에게도 그다지 썩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고요?

음, 그도 바보는 아니에요.

이미 바로 요전의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고, 사람들 모두가 현재 빈털터리인 것이 보이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좀 멍청한 일이 될 거예요. 즉, 사람들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 프레드가 〈신용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프레드는 경제에 대한 신용을 잃었어요.

이것은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프레드는 돈(그리고 이자)을 절대로 돌려 받지 못할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많은 돈을 대출해주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굶주리고 절망적이 되어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를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 그는 아침식사를 망치게 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프레드가 신용을 잃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문제를 무시하거나 아님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고, 아니면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다시 가동 시킬 수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이 상상력 실험을 약간 확장하여 프레드가 국가와 심지어 세계의 경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요.

만약 그가 문제를 무시한다면, 그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과 세뇌를 감행해야 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일을 벌일 테니까요.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약탈할 거예요. 물론 그는 그걸 <공권력>과 <세뇌>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쓴맛을 남기고 일할 의지마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대신에,

그는 아마도 그걸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교육, 오락물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왜 사람들이 잠자코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온갖 종류의 이유들을 댈 거예요. 그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를 폭파시켜버리던가, 혹은 사람들에게 보안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경찰 드라마 한 다스를 텔레비전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는 밤에 공포물을 틀어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가 뭘 하든 결과는 같아요. 사람들이 배고픈 눈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할 때, 감시, 경찰, 군대 그리고 그의 통제아래 축적해둔 기술들은 근심하고 동요된 인구를 억압하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러한 접근이 어느 시점까지는 먹혀들 거예요.

하지만, 단두대 시위를 벌였던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처럼, 프레드는 모든 것이 비극적 종말을 맞기 전까지만 계속 대중들의 고통을 냉정하게 무시할 수 있어요<sup>13</sup>. 따라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얼마만큼이나 지키길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이 오면 그는 헌혈자로서, 어쩌면 제세동법 defibrillation, 수혈조치를 시작하도록 강요 받게 될 거예요.

---

<sup>13</sup> 2012년 12월 25일 에 공개되기로 되어 있는 저의 책 『Black Book』 을 보세요.



그럼 그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음, 프레드는 옳은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으니깐 돈을 그냥 돌려놓지 않을 것이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프레드 뿐이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의 돈을 상환할 능력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해요. 그래야 프레드는 다시 돈을 빌려주기 위한 〈투자 이득〉에 대해 충분히 마음 편할 테니까요.

그럼 프레드는 어떻게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고로, 기꺼이 대출해 줄 마음이 생길까요?

뭐, 프레드가 경제에 대한 그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 했고 시험을 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여 자신에게 대출을 할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한가지는 경제를 〈재설정 reset〉하는 거예요. 경제가 간단히 붕괴하는 걸 관망함으로써 경제를 재설정하고, 〈그의 것〉이었던 것들을 다시 〈재소유 re-possessing〉 하는 거예요. 프레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빌렸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거처를 위한 집,

일하러 가기 위한 자동차, 가족들을 위한 음식 등—을 샀어요. 사람들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의 돈으로 샀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라고 프레드는 판단했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것〉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빚을 청산 해요. 그의 돈으로 샀던 물품을 재 소유 함으로써 〈그의〉 돈을 다시 상환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출해주고자 하는 프레드의 의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내버려두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관련되었을 때, 추접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인생이잖아요 c'est la vie〉, 그렇지요?

경제의 붕괴를 면하기 위해 프레드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돈을 찍어내서 경제에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은 경제의 붕괴를 면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끊임없이 노동을 축적할 수 밖에 없는 경제의 필수적인 수혈 과정—즉, 서서히 쇠진되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론 프레드는 자기 자신의 돈을 그냥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돈을 찍어내기 시작할 때에도 갓 만들어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돈 그대로 나누어 주지

않을 거예요<sup>14</sup>.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그의〉 돈의 꾸준한 가치 하락을 가져올 테니까요<sup>15</sup>.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돈에도 역시 이자를 청구할 거예요.

#### 역주 15.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프레드의 돈의 가치를 하락시킬까요? 먼저, 각각 십  
만원씩 있는 우리의 열명의 작은 경제를 떠올려 보도록 해요. 프레드는 그의 아홉  
친구들의 손아귀로부터 돈을 모조리 짜내는 일을 해치운 후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프레드가 두 가지 방식—정기적인 이윤을  
산출하는 활동 + 대출 및 이자대금—으로 돈을 짜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이 더  
빨리 고갈돼요. 경제를 너무 빨리 재설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프레드는  
가외로 지폐를 더 찍어내고 그것 역시 경제에 빌려주기로 결심해요. 문제는  
가외로 더 찍어낸 돈인데, 이제 돈은 이전에 있었던 경제에서보다 양이 두 배나  
 많아져서 이것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프레드가 가진 돈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돼요.

어떻게요?

음, 이것은 우리가 돈의 본질을 노동을 표상하는 상징이라고 얘기했던 초창기

<sup>14</sup> 아마도 역시 돈이 씨가 마른 경제에 의해 야기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돈에 쪼들리는 그  
들의 친구들을 위해 그가 〈구제 금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에는요.

<sup>15</sup> 역주의 양이 너무 방대해 본문에 따로 실었어요.

때로 돌아가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저는 적절히 화폐화 된 경제는 노동의 각 단위당(즉 시간당) 한 단위의 돈을 가질 것이라고 했었어요. 건강한 사회 속에서 하루에 일하는 평균 시간의 양은 4 시간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노동(일년당 한 사람의 총 노동량은  $4 \times 365 = 1,460$  단위)을 교환하기 위해서 하루에 4 단위의 돈을 할당 받아요. 이 경우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한 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노동에 대해 공평하게 1 단위(즉 1 달러)를 대가로 주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갑작스럽게도 경제가 전에 있었던 돈의 양보다 통화량이 두 배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일년에 한 사람당 1,460 단위 대신에, 현재는 2,920 단위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음, 가외의 현금으로 야기된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이 짧은 기간 동안 있을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는 차차 균형점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앵?

그것은 이래요.

일종의 재정적인 마술의 결과로,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일년 동안 전에 있었던 양의 두 배의 돈을 만들어 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여분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소비하기 시작해요. 즉, 그들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의 두 배나 사게 될 거예요. 그 결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바빠져요. 경제는 <과열돼요>. 쓰기에 두 배나 많아진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은 동네 냄비가게에 가서, 두 배의 냄비를 살 거예요. 증가된 냄비 수요는 동네 냄비 가게들을 매우 바쁘게 만들게 해요. 사실 너무 바빠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그가 그 자신만의 시간과 가족들의 시간까지 희생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요? 음, 그는 가족을 꾸린지 얼마 안된 건강하고 원기 왕성한 청년이라 그의 모든 시간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냄비를 만드는데 써버리고 싶지도 않고 그의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신 그는 그의 냄비 하나씩 전의 가격의 두 배로 올려요.

결과요?

인플레이션!

이것은 프레드를 제외한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만큼(가외의 현금의 존재를 반영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은 통화 흐름의 균형을 맞추고, 기업들은 판매가 감소하게 되며 모든 것은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요—프레드만 제외하고요. 불행하게도, 프레드에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수익과 이자 착취 행위 때문에, 프레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돈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더

이상의 돈을 가져가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물론, 그가 구제금융을 위한 필요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지 않는 이상에는요.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얘기에요. 따라서, 그가 돈을 찍어내 경제에 돈을 빌려줄 때—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 줄 때, 그는 어떤 돈도 취하지 않아요. 이게 당장은 문제 없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고려해보세요. 한 경제에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고 모두 백 만원씩을—예를 들어, 그들 각자에게 100 개의 냄비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가지고 있어요. 프레드는 돈을 찍어내서 모두에게 가외의 백 만원을 빌려주곤 휴가를 떠나요. 일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균형—즉, 냄비가격이 두 배로 오름—을 가져왔지만, 프레드는 그의 백 만원으로 단지 이전의 절반만큼만 살 수 있게 됐어요!

불쌍한 프레드, ⑧ 인플레이션이 그의 현금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결과적으로 그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건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겠지만,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을 동안—만약에 좋지 않다면, 적어도 나쁘진 않은 동안—, 경제에 새로이 갓 발행된 따끈따끈한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 그가 축적한 총체적인 부가 천천히 깎여 내려가는 것은 프레드에게 안된 일이에요. 분명히, 프레드는 인플레이션의 통제를 타이트하게 통제하길 원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라는 몸에 꽂은 링거 주사의 흐름을 이자율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것이에요.

이자가 얼마냐고요?

글쎄요, 이건 확실히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네요.

이건 일종의 알아 맞추기 게임이에요. 정말로요.

만약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기회<sup>16</sup>의 손실과 (더욱 중대하게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자금회수와 대출금상환으로 인해 경제가 너무 빠르게 타격을 받아 마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드는 (경제에 새로운 돈이 등장한 데서 기인한) 인플레이션과 (돈의 부족으로 기인한) 실업 두 가지 모두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럼 이게 잘 될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경제라는 몸을 계속 이자를 낳는 현금인 링거 주사<sup>17</sup>에 연결하는 것으로, 프레드의 돈의 착취와 대출활동으로 야기된 불가피한 경제적

---

<sup>16</sup> 프레드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항상 더 이득이 되는데 왜냐하면 돈을 자신 있게 더 많이 빌려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sup>17</sup> 아마도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적으로 소유한 중앙은행을 통해서요.

붕괴를 잠시나마 면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마침내 빚은 쌓이고, 프레드는 신뢰를 잃고, 돈의 흐름은 멈춰버려요. 작은 경제안에서는 이 과정이 완전히 명백해요. 하지만 거대한 경제안에서는 그것이 보다 덜 명백해요. 거대한 경제안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나 두 개의 지역들에서 빚이 쌓이게 되고, <조정 correction>의 시간이 와서, 즉,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를 때까지 빚은 쌓여서, 프레드는 공황상태가 되고, 경제의 링거 주사는 차단되며, 해당 구역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등의 일이 일어나게 되요. 또 그 때가 되면 프레드는 다시 대출을 해줄 만큼 편해질 때까지 자산을 재소유해서 이 부문의 경제를 <재설정>하게 돼요. 어느 시점에 또 다른 어딘가에 빚이 쌓일 때까지 대출은 다시 시작되고 이 모든 것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쁜 일일까요?

음, 만약에 여러분이 <재설정>의 결과로써 모든걸 잃은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면,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런지 알아내는데 그렇게 빠른 두뇌회전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집을 잃고, 아이들은 배를 굶게 되고, 자긍심은 폭탄을 맞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삶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이루어진 연중무휴 싸구려영화관이 되었어요.



반면에, 프레드는 이득을 봐요. 그의 관점에서는, 경기침체—즉 프레드의 짜내는 일로 야기된 〈재설정〉—은 그의 투자를 회수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금융조정을 가져오고, 경제에 대한 신용을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아마 직격탄을 맞았을 돈의 가치를 다시 올려줘요. 만약에 극복해야 할 최악의 일이라면 주기적인 경기하강<sup>18</sup>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프레드에게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는 행복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기적인 침체는 프레드가 극복해야 할 최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행운을 축하하고 있는 동안 침체 위기는 점점 더 빈번하게, 더 깊고 깊어지며, 거기서 헤어져 나오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져요.

문제는 항상 빛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프레드는 항상 이자를 붙여 돈을 〈대출〉해주고 이윤으로 돈을 짜내기 때문에, 프레드가 경제에 돈을 돌려놓기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구제금융이든 경기부양정책이든 세금감면 혜택이든, 그 밖에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이,

---

<sup>18</sup> 〈불경기〉는 통화의 불통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경제적 붕괴로 정의될 수 있는데 보통 대재난적으로 쌓인 빚과 투자자들의 신뢰 붕괴가 가져온 신용거래의 제한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빛—즉, 다른 사람에게 빛지고 있는 여러분의 노동력은 <항상> 축적돼있어요. 이것은 프레드가 반창고 하나나 두 개로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혹처럼 시작되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프레드가 이자를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그의 경제시스템이 파국적인 붕괴를 일으키는데 대해 프레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엔, 지금일 수도 있고, 3 년이나 4 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부채 규모가 매우 나쁘고 심하게 만연하여 프레드가 경제에 대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시점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오면 도미노는 쓰러지고 전체 경제는 전면적인 심장마비상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프레드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유리한 특권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것의 도래를 잘 알고 있고, 그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사람들이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되고, 실업, 장기 빈곤, 굶주림, 서서히 진행되는 고생스런 죽음을 맞이 하게 될지도 알아요. 이런 사실들로 추측해 볼 때 프레드가 왜 군사기술, 안보, 군대, RFID(역주: 생체소형칩) 등과 같은 것들을 애호하는지도 설명이 돼요. 물론 그는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프레드는 어쨌든 나쁜 놈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필요할 때를 위해서 그게 거기 있음을 아는 것은, 그가 더욱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지요.

그럼, 그 날이 찾아와서 경제가 완전히 심장마비에 걸리게 될 때, 프레드는 뭘 하려고 할까요?

음, 늘 그랬듯이, 프레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의 한 쪽 손에는, 「프레드는 깨어나서 그가 살아 온 뒤틀린 시스템의 본질을 알아차려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축적과 이자를 법적으로 무효화해서 국민들은 그 이후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허락하는 선택이 있어요.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는 참 좋은 친구〉라고 노래를 부르며 거리에 나가서 춤을 출거예요. 왜냐하면 프레드가 이 선택을 내린다면, 이것은 가난과 고통의 영원한 종식과 함께 지구촌의 샴발라 shambhala(역주: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을 의미)와 유토피아의 부상을 의미하니까요.

그의 다른 한 쪽 손에는, 프레드가 옛 방식을 계속 따름으로써 그의 돈에 매달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선택지가 있어요.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은 더욱 악화될 거예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마치 도미노 연결들처럼 무너져 갈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오면, 붕괴는 빠르고 극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프레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침체로써 소비자 경제

부문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빗으로 진창이 된 경제의 나머지 부분들 때문에 침체는 한 부문에서만 한정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작은 매출의 하락 조차도 파산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며 다른 부문에도 채무불이행을 가져올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힌 프레드는 경제라는 몸에 연결된 링거 주사를 차단해 버릴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미노 전체가 비참한 결과와 함께 프레드의 경제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우르르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제 아무리 많은 감시와 세뇌공작도 동요된 대중들을 진정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 시점에서 프레드는 다시 한번 유일하게 두 가지 선택을 내릴 수 있어요. 죄다 실토하고 옳은 일을 하거나, 전쟁을 벌이는 것이예요.

왜 전쟁이냐고요?

음, 먼 옛날에도 프레드와 같은 사람들은, 전쟁은 침략을 위한 발판이 되고 경제를 불황으로부터 건져내는데 훌륭한 방법이란 걸 발견했어요. 전쟁은 프레드가 그의 귀중한 비밀을 누설할 필요도 없이 경제에 많은 돈들을 주입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될 건장한 젊은 청년들을 침략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요. 그는 다른 누군가를 <악 evil>이라고 부르며, 이 모든 건장한

젊은 청년들을 악과 대항해 싸우도록 다른 나라로 보내게 돼요.

간단하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시시한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점에서는, 프레드는 진짜 전쟁, 세계적인 전쟁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비 지출을 초래하고, 또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이것은 물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뜻해요. 물론, 프레드는 싸우기 위해 적을 필요로 할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세뇌의 몇 세기가 지난 후, 세상은 종교, 피부 색깔, 국가, 성, 문화, 지역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어서, 세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핵폭탄 하나를 떨어뜨리는 것만큼 간단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걸 추천하지 않아요.

설사 다음 세계대전이 지구촌경제의 화폐를 다시 법정 화폐로  
통용하여 우리가 직면한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럭저럭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세계적·환경적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적인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야기된 수많은 생태적,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 왜곡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인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더 이상  
돌이나 막대기들로 싸우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배치된 기술들의 종류와 전체 행성을 통합할 정도로 고도화된  
상호연결성을 감안하면, 프레드가 그의 신임을 되찾기도 전에 수십억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또한 단두대나 폭력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어쨌든  
정말로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아왔듯이, 만약 한 명의  
프레드를 죽이면, 새로운 프레드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타날  
거예요. 게다가 옛 속담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망가진 세상을 압제적인 전략으로 수리할 수 없어요.

저는 또한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갈 큰 외계 우주선이나, 지구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찾아 오는 여러분의 〈시리우스 형제들〉을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는 것 역시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저를 믿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바로 아누나키 Annunaki 함대의 고위 사령관 외계인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처럼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을 돕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골치 아픈 문제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그 구원자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정확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려는 것을 그대로 말 하리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은 강력한 동료 창조자이고 신성한 창조주의 찬란한 불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 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오직 깨어나서 여러분의 능력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비록 제가 가정한 말이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변명을 하면서 프레드가 옳은 일을 해주기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 혼자서 떠맡아야 했던 그 많은 세뇌, 전쟁, 다툼, 불화, 불황, 그리고 고통들을 겪은 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선택이 첫 번째 것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들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두 번째를 택하길 원한다면, 저는 해결의 일환으로 제가 여러분이 각성하도록 돕고 권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이 사이트<sup>19</sup>를 방문하기를 권해드려요. 부디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는 영적 작가이며 그러하기에 제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해결책들도 영적인 해결책들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제 사이트에 들르셔서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

<sup>19</sup> [www.michaelsharp.org](http://www.michaelsharp.org)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마가복음 11:15-18」**

이 문서를 당신의 독자들을 위해 당신의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자유롭게 올리세요.

제 홈페이지 [www.michaelsharp.org](http://www.michaelsharp.org) 에 링크를 걸어 놓아 주시면 감사 드리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만약 경제에 관한 이 원고를 온라인에서 무료 ebook 으로 보았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제공해 준 경제적인 깨달음의 대가로 2 달러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아래의 주소를 통해 기부할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세요.

[https://www.paypal.com/cgi-bin/webscr?cmd=\\_s-xclick&hosted\\_button\\_id=4122696](https://www.paypal.com/cgi-bin/webscr?cmd=_s-xclick&hosted_button_id=4122696)

자발적인 교환이 이뤄지는 새로운 세계의 경제를 창조하는 데 대한 당신의 기꺼운 기여에 감사 드려요.

제가 쓴 보다 많은 무료 ebook 들을 보고 싶다면,

<http://www.michaelsharp.org/free-ebooks> 을 방문해 주세요.

## ABOUT MICHAEL SHARP

저는 사회학자이자 신비가이며 우주론에서 신학, 차크라 활성화, 상승 그리고 몸마음의 깨어남에 이르기까지 여러 권의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영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학적 사고를 담아 놓고자 스피릿위키 SpiritWiki(<http://www.thespiritwiki.com>) 를 만들었죠.

이 책을 쓰기 전에, 전 경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따는 데 실패하긴 했지만, 엔지니어링 학위를 따기 위해 경제학 수업을 듣긴 했었죠. 그런데 강의를 한 시간 듣곤 포기했어요(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그 다음에 학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죠. 저의 실수로부터 배운 바가 있어, 전 두 번째로 대학교에 등록했을 때 가능한 경제학과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전 사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진학했어요.

인터넷으로 저를 방문하고 싶으시면, <http://www.michaelsharp.org/> 또는 <http://blog.michaelsharp.org/>으로 오세요.

